

쏟아지는 해양쓰레기 ... 청정 전남 바다가 병든다

내륙에서 밀려오고 양식장서 발생 ... 어촌·지자체 처리 불능 상태
어류·패류·해조류 통해 식탁까지 ... 수거·처리에 막대한 비용 발생

전남의 청정해역이 해양쓰레기로 뒤덮이고 있다. 중국 등 해외나 내륙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와 함께 전복, 김, 미역, 다시마, 굴 등의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이미 위협 수위를 벗어났다는 목소리도 높다. 해안에도 스티로폼, 폐어구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등 어촌이나 지자체가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체하는 동영상 하나가 인터넷과 페이스북 등 SNS를 달궜다. 이 어귀는 살아 있는 상태였지만, 요리를 위해 배를 가르는 순간 악취가 진동하며 위장에서 500ml 패트병 하나가 튀어나왔다. 패트병을 먹은 어귀는 먹지도 싸지도 못한 상태로 위장이 썩을 때까지 고통을 살아가다가 그물에 걸려든 것이다. 그나마 패트병은 눈으로 식별이 가능하지만,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들은 어류, 패류, 해조류 등에 있다가 인체에 들어온 뒤 축적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더 높다.

하지만 해양쓰레기를 모두 수거·처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다 쓰레기 발생 자체를 차단하지 못하면서 해마다 해양쓰레기는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전남 해역 곳곳에서 플라스틱 겹겹이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실정이다.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2023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8만 4106t이며, 이 가운데 해상에서 5만 444t, 육상에서 3만 3662t이 유입됐다. 해상 쓰레기 가운데 어망어구 유실량이 3만 8105t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6462t), 항만 유입물량(5366t)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존하는 해양쓰레기

는 모두 15만 7000t으로 추정된다. 전남도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평균 2만 6713t으로, 이 가운데 해상 1만 3694t(51%), 외국 1만 2540t(47%), 육상 479t(2%)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용역을 통해 이 같은 수치를 밝혀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2015년 1만 5735t을 시작으로 2017년 1만 9657t, 2018년 3만 2618t 등 매년 수거량을 늘려가고 있으나 역부족인 실정이다. 수거 및 처리 비용은 매년 증가하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데다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광역 이동성으로 인해 책임 소재 역시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해양쓰레기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해남군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발생시키는 등 해양쓰레기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스티로폼 부표를 해남 해역에서 없애기로 하는 등 선제적인 대처에 나섰지만, 문제는 그에 따른 예산이다.

전남도는 우선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 재원 및 지원 비율 상향을 요청하고 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경우 국비 70%를 지원하고, 친환경부표 보급사업 처리비의 지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업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해양 환경(해양쓰레기)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 주관 해양환경교육을 의무 편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코로나 확산 이번 주가 고비

광주, 가족·지인 통해 연쇄 감염
전남, 동부권 중심 확진자 잇따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가족·지인 등 연쇄 감염이 잇따른 광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명 늘었다. 방역당국은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를 중심으로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높다고 판단, 전방위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에서는 고흥, 여수 등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와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으로 가족이나 지인 간 접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5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8명이다. 이들은 광주 2446~2453번째 확진자로 등록됐다. 2446번째 확진자는 지난 3일 근육통과 기침 등 증상을 호소한 뒤 전남 직접 선별 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2451번째 확진자는 감염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2444번째)의 가족이며 광산구 모 고등학교 재학생이다. 방역당국은 해당 고등학교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대상자는 전교생·교직원 등 1000여 명이다.

2447·2448번째 확진자는 감염 경위를 알 수 없는 확진자와 직·간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449·2450번째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2318번째)의 가족으로,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됐다. 2452번째는 전남 1049번째와, 2453번째는 2318번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서는 이날 오후 5시 30분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이 발생해 1106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2일 24명을 정점으로, 3일 9명, 4일 12명, 5일(오후 5시 30분 현재) 5명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일부터 5일 오후 5시 30분까지 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고흥 24명, 여수 18명, 순천 4명 등 전남 동부권에서만 46명이 나왔다. 감염률 전남지사는 이날 여수시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남도는 지난 2일부터 여수시에 감염병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역학조사관과 감염병지원단을 급파했다. 이들은 상황 안정될 때까지 상주하며 심층 역학조사, 접촉자 파악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을 동부권 '전담 검사기관'으로 지정, 광범위하고 신속한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여수·순천·고흥 등 전남 동부권 유행 시설 종사자 진단검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한편 전남도는 6일부터 접종대상자 60~74세 고령자를 비롯해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 39만 5822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 사전 예약에 나선다. 70~74세 고령자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는 6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65~69세 고령자는 10일부터, 60~64세 고령자와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교사는 13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5월은 푸르고 어린이는 즐거워 어린이날인 5일 광주 패밀리랜드를 찾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어린이들 신나게 뛰어놀 날 최대한 앞당기겠다”

문 대통령, 어린이날 ‘랜선 만남’

문재인 대통령은 제99회 어린이날인 5일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날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씩씩하게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이 너무나 대단하고 자랑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 바램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내년 이날에는 여러분을 청와대에서 맞이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여사는 전남 강원도 평창 고성초등학교 전교생 38명과 랜선 만남에 퀴즈를 함께 풀고 장래 희망과 어린이날에 얽힌 추억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69 광주일보 창간일보

Covid 19

방역살균제 65만의 신개발
세계의 경이적인 살균제
비교할수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의
호흡기 독성피해 · 사망사건 이후
철저한 독성검증 후 개발된
코로나 바이러스 유해세균
5세대 신개발 코로나바이러스 살균제

정상의 전문방역약품 개발 공금
[2:3] 5세대 (5th Generations) 살균제

SBT
500mL 1L 4L
직접분무

각 보건당국의 필수품

선진방역의 역사 성인제품
능가할 수 없는 세계정상의 전문방역약품

코로나 박테리아에는 **SBT**
모기 등 해충방역약품에는 **Bactosec** 뉴-BA SM-XRG
성충방역 필요시 환경호르몬 걱정없는 강력살충력 **Zenivex**

-선진각국의 옥외공중방역의 현실-

미국알라메다카운티에서제시하는 생물방역살충제와 Bio에스메토프렌(공중성장억제제)를
이용한 선진유충방역이 세계공통입니다. 시급한 공중방역의 혁신

THE ALAMEDA COUNTY MOSQUITO
ABATEMENT DISTRICT
CONTROL PROGRAM
September 2011

CONTROL SELECTION CRITERIA
ALAMEDA COUNTY MOSQUITO ABATEMENT DISTRICT

Chemical Control Materials	Biorations		L.G.R.		Vertical Aquatic		Aerially	
	Application	Effectiveness	Application	Effectiveness	Application	Effectiveness	Application	Effectiveness
Pyrethroids	Low	Low	Low	Low	Low	Low	Low	Low
Organophosphates	Low	Low	Low	Low	Low	Low	Low	Low
Neurotoxins	Low	Low	Low	Low	Low	Low	Low	Low
Biologicals	High	High	High	High	High	High	High	High

▲ Acres treated by type of pesticide used.
© 2012 Alameda County의 E.O.
2012년 / 2017년

-우리의 옥외 공중방역의 현실(평균5년) -

- 1) 비효율 성충방역 79.3%, 선진유충방역 20.7%
지침서 부록 2018년 참조 ※ 조달청나라장터 / 특정품목조달내역 구매 금액기준
- 2) 위 선진유충방역 20.7% 중에서 발작물용 농약성분, 독성유기인계(테메포스)살충제 94.7%
전문방역 생물학적 살충제 Bio공중성장억제제가 5.3%에 불과
지침서 부록 2018년 참조 ※ 조달청나라장터 / 특정품목조달내역 구매 금액기준

국가브랜드 대상
National Brand Awards 2020
-선진방역부문-
성인제약

최우수브랜드

국산신기술
제201621호
Excellent Korean Technology

전문방역약품 모기 등 유해해충 세계방역약품의명성
세계 최강의 생물학적 방역 살충제

Bactosec
박 토 색

최고로 평가되는 박토색의 찬사
now, this is the last choice!
국내 유일 세계 최상의
전문 방역 약품 개발 공금
보건 녹색 문화 바람 제창

세계 정상의 전문방역약품 개발 · 공금
제1의 전통 전문 방역 약품
선진 개발의 역사
SBT 성인제약주식회사
☎ 080-2000-419 Since 1978